



INSTITUT
FRANÇAIS
주한 프랑스문화원



한국내 예술협력

- 개요 -

한국 문화계 동향

한국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문화가 사회적 결집 및 개인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특히 국가의 이미지를 해외에 알리는 영향력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 중 문화 정책을 실시한다. 국가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한편 대중문화(비디오 게임, 만화, 드라마, K-pop) 콘텐츠를 담은 문화 창작 산업을 선두에 내세워 그 경제적인 중요성도 놓치지 않는다.

국제적인 문호 개방, 호기심 많고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다양한 관객층, 예산과 인력을 가진 다수의 조직들, 훌륭한 교육 과정, 최신 창작을 보기 위해 직접 해외를 여행하며 국제적인 창작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프로그래머들이 한국의 성숙한 분위기를 보여주며, 이는 역동적인 민간 부분에서 더욱 활기를 띠며 문화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양국 관계

프랑스가 한국 예술계에서 비교적 꾸준히 견고한 입지를 고수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우선 프랑스가 선도하는 클래식한 장르는 물론 인기 분야인 패션과 요리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1990 년~2000 년대에 프랑스에서 유학한 후 현재 한국 문화계 요직에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프로그래머, 미술관장 및 아트센터 대표, 예술비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상기한 두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한국 예술계에서 꾸준히 프랑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모든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한국 프로페셔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양국의 협력은 주로 축제, 공공 및 민간 미술관 및 아트센터, 독립 제작자, 대학 등을 주요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에서 프랑스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문화행사는 다수를 헤아리며 특히 거리예술과 클래식음악처럼 양국 간에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민간에서 1 년에 4~6 개 대형전시 (2017 년 자고-앙리 라르띠그, 국립장식미술관의 « 단추로 풀다 », 카르티에재단의 « 하이라이트 », 모리스 드 블라맹크, 마리 로랑생, 르 코르뷔지에, 앙드레 케르케츠, 루이 뷔통의 «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 ; 2018 년 자코메티, 니키 드 생팔, 샤갈 ; 2019 년 피카소와 큐비즘, 제주도 빛의 병커에서 열린 반 고흐전, 베르나르 뷔페)가 주최되고 대형 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국제작가축제, 서울국제도서전, 2018 년과 2020 년 광주비엔날레 프랑스관, 2020 부산비엔날레 프랑스 포커스, 2021 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등)에 매년 프랑스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부상하고 있다. 점점 강해지는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 네트워크 형성. 따라서 프랑스의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공간들을 공략하여 좀 더 젊고 대안적인 새로운 관객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아트, 디자인, 다원예술, 예술경영과 같은 혁신 분야에서 예술교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 주요 추진 방향 -

1. 프랑스 현대 창작물 홍보

국제적인 대형 행사 및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에서 프랑스 현대 창작물이 소개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2.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협업 유도

모든 분야의 현대 창작물, 특히 디지털 아트 및 공연예술에 중점을 두어 인큐베이터, 레지던시, 공동제작 플랫폼을 제안하여 양국의 기관, 조직, 아티스트들 간의 지속적인 시너지와 협력을 권장한다.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랑스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신예 또는 중견의 아티스트 및 문화계 관계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프랑스의 문화 관련 노하우를 한국에 전수하고 프랑스의 문화 브랜드를 한국에 도입한다. 프랑스 유수의 문화기관들을 기반으로 예술경영의 전문적인 지식 교류를 권장하고 프랑스 모델을 소개한다.

3. 프랑스 이미지 쇄신

신생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 관객은 물론 프랑스의 이미지를 쇄신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층을 겨냥한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다.

4. 네트워크 기반 활동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지방의 협력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방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한국과 프랑스 지자체 간의 협력을 시도하며 아시아 지역의 프랑스문화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아시아 투어를 권장함으로써 비용을 합리적으로 상호분담하도록 한다.



2018 광주비엔날레 팔레 드 도쿄 관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대부분의 경우 직접 행사를 주최하지 않고 주요 행사들에 동참하여 다양한 관객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속성 없이 일시적으로 열리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보다는 프로페셔널 간에 장기적인 협력을 유도한다. 또한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한국인을 관객으로 하지 않는 프로젝트나 단순한 아마추어의 작업, 한국에서 기획하면서 프랑스 프로페셔널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 프랑스문화원 사업 -

프랑스문화원 파리본부는 창작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돕고 작품과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물론 한국 프로페셔널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운용한다.

해외진출 및 문화 전문지식

Focus 프로그램은 관련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외국 프로페셔널에게 프랑스의 최신 동향을 알리는 전문가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래머, 젊은 전시기획자, 미술비평가, 제작자, 문화공간 책임자들에게 축제, 비엔날레, 아트 페어 등 관련 분야의 가장 중요한 행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프랑스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쿠랑 뒤 몽드(Courant du Monde) 프로그램은 프랑스 문화부가 주관하며 해외 문화분야 종사자들을 초청하는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이다.

Labs 프로그램은 씽크탱크이자 인재 양성소로서 국제적인 지원사업이다. 민간사회들이 서로 대화하도록 유도하여 참가자들이 미래에 자국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력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작

Théâtre Export는 2014년 프랑스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해외에서 현지 극장의 소속 배우들이나 연극 단체 또는 국제 페스티벌과 협력하여 연극 창작을 하는 프랑스 연출가를 지원한다.

지원공모

프랑스문화원은 매년 여러 분야에서 프랑스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IF Incontournable은 한국의 대규모 행사에 초청된 프랑스 아티스트를 지원한다.

IF Tournée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도시에서 5회 이상의 공연을 하는 투어를 지원한다.

IF monographie는 한국에서 열리는 프랑스 아티스트 전시를 지원한다.

www.ifprog.emundus.fr/fr/

레지던스

프랑스에는 한국 아티스트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다수의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이 있다.

파리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de Paris) :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 동안 파리에서 연구 및 창작을 하려는 외국 아티스트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하나 혹은 다수의 문화 협력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문화원 본부는 파리국제예술공동체에 아티스트가 거주하며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피멩코(FIMINCO) 재단 : 프랑스 로맹빌(Romainville)에 위치한 레지던시로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분야의 조형 시각 예술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 창작, 작품제작을 할 수 있다.
(Seine-Saint-Denis : www.fondationfiminco.com)

La HIVE- résidence @thecamp : HIVE 레지던시는 전세계 20 명의 젊은 창작자들이 6개월 간 체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에 위치한 thecamp 가 운영한다 (<https://www.hivers.fr/>).



- 협력기관 -

대부분의 문화협력은 프랑스 문화예술의 최신 동향에 밝은 한국의 주요 문화 조직 및 운영자들(페스티벌, 미술관, 아트센터, 비엔날레, 독립제작자, 대학, 발행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이를 지원한다.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한국의 문화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이 중 일부는 프랑스 파트너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축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 국제 댄스페스티벌 인 탱크
서울거리예술축제	사운드아트페스티벌 WESA
서커스 카바레 페스티벌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

서울문화재단	ZER01NE - HYUNDAI
우란문화재단	극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디자인재단	대전문화재단
대산재단	

문화기관

국립극장	국립극단
국립무용단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나비아트센터